신흥국 전략

인도

모디 총리의 대국민 호소에 담긴 고유가 부담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모디 총리, 금 구매와 해외 여행 자제 촉구하며 외화 유출 억제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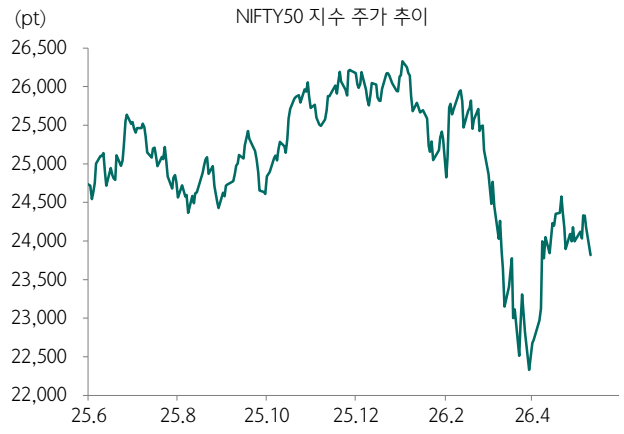
모디 총리가 5월 10일 대국민 연설에서 인도 국민들에게 에너지 소비 절감과 금 구매, 해외여행 자제를 촉구했다. 이후 5월 11일 NIFTY50 지수는 -1.5% 하락했으며, 지수 구성종목 중에서는 소비 둔화 우려가 부각된 Titan이 -6.7%로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 이 밖에도 Senco Gold(-8.5%), Kalyan Jewellers(-9.3%)와 같은 주얼리 관련주와 InterGlobe Aviation (-4.9%) 등 항공·여행 관련주 전반의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이는 시장이 해당 발언을 단순한 소비 절약 권고가 아니라, 고유가가 인도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인도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약 90%에 달하는 만큼, 유가 상승 시 달러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원유 수입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경상수지 악화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FY2026년 인도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약 1.3%로, FY2025년 0.6% 대비 큰 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 대비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0.5%p씩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대외건전성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 수요와 해외여행 지출까지 확대될 경우 외화 유출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특히 금은 인도 가계의 전통적인 선호 자산이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외환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FY2026 인도의 금 수입액은 약 720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10% 규모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 금 수요 확대는 외환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인도 정부가 금 구매 자제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경상수지 적자와 루피화 약세 우려가 심화됐던 시기에 금 수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국민 권고가 나온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총리가 직접 금 구매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와 해외여행 자제까지 함께 언급했다는 점에서 보다 강한 외환 방어 신호로 해석되며, 이는 현재 정부가 고유가 충격을 외환시장 안정과 대외건전성 관리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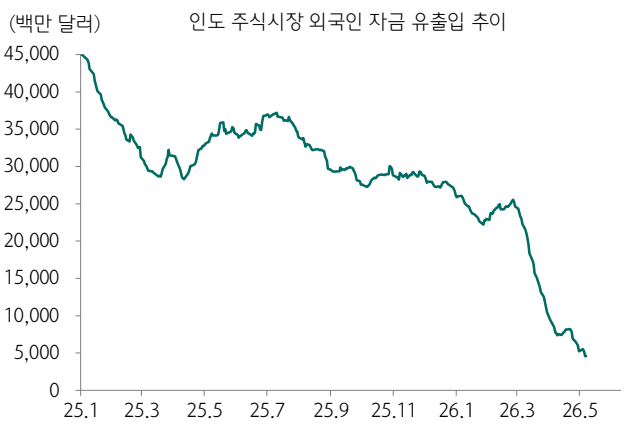
한편, 인도 증시의 추세적 회복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복귀가 중요한데, 외화 유출 압력이 커질 경우 루피화 약세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미 달러 대비 루피화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평가절하된 상황에서 환율 불안이 이어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차손 부담이 확대되며 인도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복귀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지정학 리스크 완화 기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더라도, 유가와 루피화 안정이 확인되기 전까지 외국인 수급의 본격적인 회복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1. 인도 NIFTY50 지수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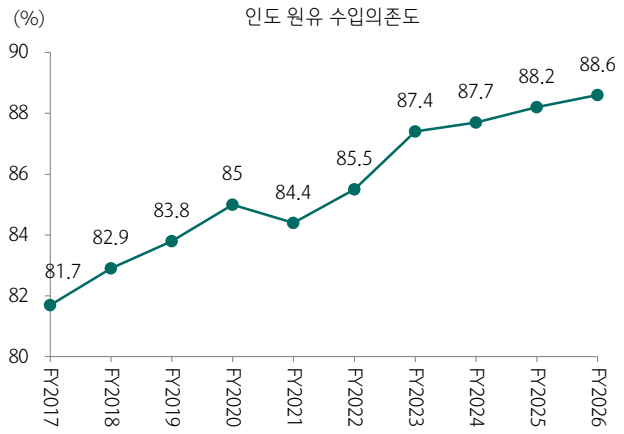
자료: CEIC, 하나증권

도표 2. 인도 증시 외국인 자금 유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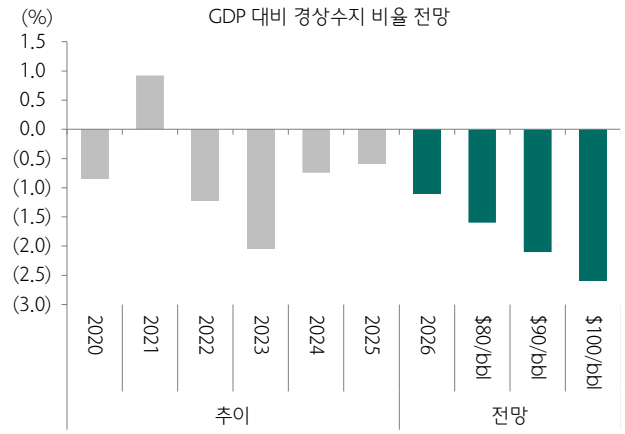
자료: CEIC, 하나증권

도표 3. 인도 원유 수입의존도



자료: 현지 언론, 하나증권

도표 4. 인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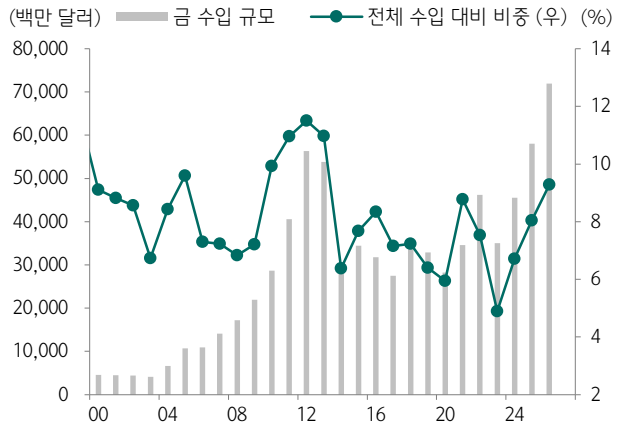


자료: CEIC, 하나증권

도표 5. 인도 달러/루피 환율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6. 인도 금 수입 규모 및 전체 수입 대비 비중



자료: CEIC, 하나증권